

햄 · 소시지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 및 구매 실태 조사

조수현*, 박범영, 진구복¹, 황인호, 유영모,
 채현석, 김진형, 안종남, 이종문, 김용곤
 *축산기술연구소, ¹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

본 설문조사는 2001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특별시와 광역시를 비롯하여 일반 대도시 17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434명의 20대~60대 전후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육가공제품에 대한 의식 및 구입실태를 중심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. 육가공제품의 구입횟수는 월 1~2회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40.73%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 1~2회 구입하는 것(28.07%)으로 나타났다. 햄과 소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입한다가 86.75%로 나타난 반면 구분하지 못한다가 13.25%로 나타났다. 햄과 소시지를 구분한다고 응답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맛으로 구분한다고 응답하였고(71.93%) 외관으로 구분한다가 10.56% 였으나 그 밖에도 제품이름으로만 구분할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7.51% 있었다. 햄과 소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서 두 제품의 고기함량 및 첨가내용물들이 비슷하여서(47.19%)가 가장 많았다. 햄과 소시지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회사명(brand name)인 것으로 나타났으며(32.76%) 원료육의 종류(16.53%), 유통기한(16.38%) 및 원료육 생산지(16.23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소비자들은 햄과 소시지 구입시 불만사항으로 47.65% 소비자들이 제품내에 고기보다는 다른 첨가제들이 많아서 고기맛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관 및 내용물이 비슷한 제품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소비자 및 맛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각각 27.70%, 11.62%인 것으로 나타났다. 햄 및 소시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고기함량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4.04%였다. 햄과 소시지 제품 판매시 품질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품질차등제 실시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3.54%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햄과 소시지 제품의 품질차등제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